

4개분야 정책방향

이명박 시대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 기간 내내 정치개혁과 성장 위주의 공약을 쏟아내는데 노무현 정권과 차별화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 당선자는 우선 내년 18대 총선 공천 심사과정에서 혁명에 가까

울 정도의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친기업·성장 중심의 정책을 도입해 경영계에서는 환영을, 노동계와의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정치·교육·노동·환경 등 4개 분야의 공약과 정책방향을 소개한다.



한나라당 광주·전남 지도부 5·18모지 참배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한나라당 광주시당·전남도당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국립 5·18 모지를 참배하고 있다.

여의도식 정치 근절... 정부조직 대폭 손질

정치 분야

“여의도식 정치”를 확 바꾸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전 내내 입에 달고 다닌 말이다. 이 당선자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토대로 본격적인 정치개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탈 여의도와 인적쇄신=이 당선자 정치개혁의 요체는 탈여의도로 집약된다. 당리당락과 소모적 정치공방에 매몰된 기존의 여의도식 정치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펼칠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이 당선자는 우선 내년 18대 총선 공천 심사과정에서 ‘공천혁명’에 가까운 정도의 대대적인 인적쇄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미 공천시스템 개혁에 착수한 상태다.

총선 공천 몰갈이 비율이 보통 40%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18대 국회에선 최소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이라는 설익은 전망도 나온다. 물론 박근혜 전 대표측의 지분요구 가능성과 측근들의 ‘자기 사람심기’ 경쟁 등으로 개혁공천과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당선자가 ‘여론’과 ‘명분’을 무기로 공천혁명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않다.

▷정치공작 근절=공천 다음으로는 네거티브, 흑색선전, 정치공작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정치공작법이나 흑색선전 유포자 등이 아예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허위사실 폭로자로 하여금 72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입증토록 하고, 입증실패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중앙정부·기업 손질=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개혁에도 본격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이미 현행 ‘18부-

4처-17청-기타 17개 조직’으로 편제된 현행 56개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대국(大局)’ 체제로 재편하고 41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를 대폭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실용정부’ 모토에 맞게 공무원 수는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더라도 조직을 실질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선거제도·개헌 등=선거구 제도나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손질 가능성이 있다. 이 당선자가 그토록 고대했던 호남에서의 ‘10% 벽’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주의 한계를 몸소 체험한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느냐는 것.

개헌 문제도 조기에 매듭지를 공언이 크다. 이 당선자는 이미 권력구조 뿐 아니라 인권, 남녀평등, 환경문제 등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담아 50년,100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교육 분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분야 공약은 ‘대학 자율화’와 ‘사교육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대학 자율화는 수능, 본고사 등 대입 선발고사와 가장 큰 연관이 있다.

과도한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쥐야 하며 이를 위해 ‘3단계 대입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구상이다.

1단계로 대학이 학과 특성에 따라 학생부와 수능성적을 자유롭게 반영하도록 하고 2단계로 수능 응시 과목수를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하며 마지막 3단계로 대입을 완전히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 ‘대입 완전 자율화’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가 굳건히 유지해 온 ‘3불정책’(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 금지)도 손질될 것으로 보

자율·경쟁이 핵심 축... 3불정책 폐지 가능성

인다. 이 당선자는 ‘3불정책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기여입학제는 좀더 논의해 봐야 하고 나머지 두 사항(고교등급제, 본고사)은 대학 자율에 맡기면 자연히 효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사실상 폐지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3불 폐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인 만큼 향후 추진 과정에서의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사교육비 부담에서 서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질 좋은 우수학교를 많이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 /연합뉴스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농촌지역과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 지속형 공립고교를 지정하고 전문계 특성화 고교인 ‘마이스터 고교’를 50개 육성하며 국가의 통계를 받지 않는 ‘자율형 사립고’를 100개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참여정부가 현행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등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한다며 설립을 엄격히 제한한 것과는 대조적인 정책방향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평가를 받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고 모델로 현행 자사고에 대한 재규제를 낮추면 최소한 100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게 이 당선자의 구상이다. /연합뉴스

친기업 ‘우향우’ 전망 비정규직 해법이 관건

노동 분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분배’와 ‘법과 원칙 준수’ 등을 주창하고 있어 기업쪽에 무게 중심을 둔 노동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법 개정 등 노동계 현안을 놓고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노동계와 불협화음이 우려된다.

이 당선자의 기본적인 노동관은 ‘투쟁일변도의 노동운동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탈바꿈해 노사가 함께 갈 때 경제가 성장하고 결국 그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당선자는 선거 기간 “대통령이 된다면 정치노조, 강성노조, 불법파업을 없애겠다. 불법파업을 없애고 사회기초법질서를 확립해서 우리사회가 선진사회가 되면 경제도 앞서 갈 수 있다”라고 강조한 바 있어 노동계내 강성노조와 이를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당선자가 노동정책면에서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노동계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법이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비정규직법 안착에 방점을 두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노사단체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DMZ 생태공원 조성 ‘대운하 건설’ 논란 예상

환경 분야

이명박 당선자의 환경정책은 ▲그린 코리아 조성 ▲깨끗한 수돗물과 맑은 공기 ▲환경규제의 선진화 ▲환경관리기술의 수출전략산업화로 요약된다. 세부 공약으로는 비무장지대(DMZ) 생태공원 조성과 황사방지를 위한 북한 나무심기 사업 지원, 먹는 수돗물 전국 공급, 아토피 퇴치 센터 마련,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사용 허용 등의 공약도 눈에 띈다.

전 세계적 이슈인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도 ‘환경보존과 관’을 신설, 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하도록 해 대책마련에 힘을 준 것도 특징이다. 한반도 대운하로 물길을 관리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어 환경 단체들과의 격전도 예상된다.

비무장지대에 생태공원을 조성해 분단의 현장을 생태계 보존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한탄강, 임진강 등 DMZ 일원을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지정 세계생태환경자연유산으로 등록하고 동물서식지를 ‘에코 뮤지엄’(Eco Museum)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환경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이다. 환경단체들은 국토환경의 파괴와 생태역사 단절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 새해 정동진 해돋이 전세열차. Includes a train image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Daewon Travel Agency (대원여행사)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Large advertisement for Sony BRAVIA televisions, featuring product images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Mido' (미도) restaurant, featuring food images and promotional text.